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세세세

1주차	일시	4월 17일 13:40 탐구관 301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소혜(2392030)	0
		박채원(2392027)	0
		정은채(2392024)	0
		김예은(2392037)	0
	문다영(2392014)	0	
진도	도서명: 셰익스피어 4대비극	진도페이지: 9p. ~ 224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박채원, 김예은, 문다영, 정은채, 조소혜]</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주제: 햄릿은 복수에 성공한 것인가?</p> <p>김예은: 햄릿은 복수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죽었고, 햄릿 자신도 죽음을 맞았으므로 복수의 의미는 사라졌다. 클로디어스를 죽이게 된 과정도 햄릿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휩쓸려 발생한 것이므로 복수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햄릿의 복수의 목표가 그저 '클로디어스를 죽이는 것' 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햄릿은 숙부가 어머니와 결혼을 한 비상식적인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덴마크 사회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왕자의 신분인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 뿐 아니라 부정부패한 사회를 바꾸고, 클로디어스를 죽이는 일의 정당성 확보를 추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두 죽음을 맞아 덴마크는 생똥맞은 타국의 왕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햄릿은 복수와 목표 달성을 실패했다고 생각한다.</p> <p>문다영: 햄릿은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양하</p>		

다. 우선, 햄릿은 복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다. 또, 햄릿을 왕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한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만을 신경 쓰다 결국 휩쓸리게 되었다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왕을 살해하는 도구가 어떤 경로로 마련이 되었든 얼떨결에라도 성공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왕을 직접 찌른 인물은 햄릿 본인이며, 왕에게 독배를 마시게 한 인물 역시 햄릿 본인이다. 행여 햄릿이 직접 왕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들,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데 어떻게 복수에 성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타인을 살해하더라도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살인 방조'이기에 일정량의 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햄릿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위에 앉아있는 왕을 죽이는 행위를 통해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조소혜: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햄릿의 복수 목표 자체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숙부를 죽이는 것, 그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욕구를 햄릿은 대사를 통해 드러냈고, 복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햄릿은 스스로의 목숨을 아까워하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수에 자신의 생존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사망이나 비극과 같은 일은 복수 성공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에, 복수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햄릿이 계획한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박채원: 햄릿은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햄릿은 굉장히 신중한 인물로 복수를 할 때도 단순히 살인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클로디어스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기도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영혼을 정화하고 저승에 갈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 이때 죽이는 것은 복수가 될 수 없다며 참는다. 그러면서 도박과 폭언, 구원의 기미가 전혀 없는 행위에 몰두할 때 일격을 가하면 그의 영혼조차 저주받아 지옥으로 곧두박질 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까지 죽이려고 하는, 구원의 기미가 전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던 때에 클로디어스를 죽였기에 자신이 원하던 시기에 자신이 원하던 복수에 성공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정은채: 햄릿은 복수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 그렇다 햄릿의 목표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고 그 대상에 복수를 하는 것이었다. 햄릿은 클로디어스 왕을 살해하고 아버지의 복수에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오펔리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있어서 모든게 햄릿의 잘못은 아니지만 햄릿의 계획으로 시작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햄릿도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죽음과 관계 없이 복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2주차	일시	5월 1일 13:30 탐구관 301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소혜(2392030)	O
		박채원(2392027)	O
		정은채(2392024)	O
		김예은(2392037)	O
문다영(2392014)		O	
진도	도서명: 셰익스피어 4대비극	진도페이지: 227p. ~ 437p.	
토론 내용	 <p data-bbox="560 1200 1422 1234">[좌측부터 강호정 멘토교수님, 박채원, 문다영, 정은채, 김예은, 조소혜]</p> <p data-bbox="491 1285 959 1319">※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 data-bbox="491 1375 1433 1411">토론주제 (1) : 오셀로와 이아고 중 최고 빌런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p> <p data-bbox="491 1467 1493 1924">김예은: 더 비열한 인물은 이아고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자리가 빼앗겼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과대평가하여 주변에 해를 끼친 것만큼 졸렬한 행동은 없다. 소중한 사람을 믿지 않고 열등감을 내비친 오셀로도 속이 좁은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자신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거나 정면으로 부딪혀 항의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공작을 벌인 행동은 치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비열한 행동이다. 이아고는 결과적으로 상관과 그의 아내, 자신의 아내, 동료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적어도 오셀로는 데스테모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죽인 것도 너무나 사랑했던 마음이 큰 배신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p> <p data-bbox="491 1982 1493 2112">문다영: 오셀로와 이아고 중 가장 비열하고 빌런인 인물을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아고를 고른다. 이아고가 간교한 건 사실이지만, 카시오에게 자신이 꿈꾸던 자리를 빼앗긴 게 불만으로 다가와 복수를 하고 싶었다면,</p>		

캐시오를 죽이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오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야고는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야고는 비열하거나 못된 인물이라고 평가하기 보다 그저 멍청한 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고가 아닌 오셀로가 더욱 비열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다. 또, 오셀로는 자신이 한없이 사랑하던 여인인 데스데모나를 신뢰하지 못했으며, 실재가 없는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 등 오셀로 자신의 멋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부른 판단으로 인해 아버지와 의절까지 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던 데스데모나에게 상처를 주고 해쳤다는 점에서 비열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이후에는 진실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살을 하지만 그전까지 이야고를 탓하는 언행들이 있다. "지독한 악당놈", "괜찮다면 명예로운 살인자라 하지요, 미움이 아니라 명예로 모든 일을 했으니까.", "제발, 저 악마 인간에게 물어봐 주시겠소, 왜 그렇게 내 영육을 뒷에 몰아넣었는지?" 등과 같은 발언들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까지는 갖고 있지만 타인의 말에 쉽게 휘둘린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인 타인을 탓하는 태도'가 옳바르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벌인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을 택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한 모습을 통해 오셀로가 가장 비열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조소혜: 이야고가 최고 빌런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 전개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시작에 불을 붙인 것 역시 이야고이고, 인물 간의 갈등을 만들어냈으며 이야고는 캐시오와 오셀로에게 가지고 있던 앙심을 바탕으로 그와 관계없는 다른 인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야고의 의도성과는 상관없이 이야고가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비극적이게 만든 최고 빌런이라는 의견이다.

박채원: 오셀로보다 이야고가 더 빌런인 것 같다. 물론 이야고의 말에 속아 넘어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랐던 캐시오와 데스데모나를 내쳤다는 것도 옳바른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이야고의 행동이 더 비겁했다고 생각한다. 이야고는 자신이 원했던 지위를 캐시오가 차지했다는 것에서 온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오셀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물이다. 만약 이 지위를 캐시오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오셀로가 누가봐도 부족한 인물인 캐시오를 그와 결탁하여 해당 지위에 임명했다면 모르겠지만 캐시오는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얻어낸 자리였기에 자신이 캐시오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오셀로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복수를 위해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이용하여 오셀로 이외의 인물들에게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인물이라 평가했다.

정은채: 오셀로와 이야고 중 이야고가 더 빌런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고는

	자신의 욕망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간질하고 자신의 자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생각해보고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정말 찌질해보였다. 결국 오셀로와 이아고 둘 다 열등감이 드러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을 피어내서까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이아고가 더 빌런이라고 생각한다.
--	---

3주차	일시	5월 22일 13:30 탐구관 301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소혜(2392030)	0
		박채원(2392027)	0
		정은채(2392024)	0
		김예은(2392037)	0
	문다영(2392014)	0	
진도	도서명: 셰익스피어 4대비극	진도페이지: 441p. ~ 636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조소혜, 정은채, 박채원, 문다영, 김예은]</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주제 :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인가</p> <p>김예은: 상황상 리어왕의 폭탄 선언으로 이야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야기 전에 서로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고 느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리어왕이 이야기 초반부터 원했던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리어왕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딸들의 표현을 말로 듣기 원했다. 왕이 원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면 코델리아도 한번쯤은 아버지가 원하는 표현을 해 줘도 좋았을 것 같다.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동안에 쌓인 추억과 애정, 그에 따른 행동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p>		

해당 인물들이 과거에 어떻게 서로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느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작품의 현재 관점으로 본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다영: 해당 상황에서는 가족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흔한 말로 표현이 다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나 가족의 경우, 모든 것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이해 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다. 리어 왕은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해 주기를 원했지만, 막내딸인 코델리아가 그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델리아는 “나는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 그녀의 말엔 모든 사랑이 담겨있다고 생각된다. 연인 간의 상황이었다면,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하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은 ‘사랑’으로 낳은 아이, ‘사랑’으로 자란 아이, ‘사랑’으로 모시고 따른 부모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말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코델리아의 언행에서도 충분한 사랑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조소혜: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 등 소중한 관계에서 사랑을 느낀다. 사랑한다고 말로 내뱉지 않더라도 행동, 눈빛 등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도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어왕 역시 이러한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코델리아의 사랑을 느꼈기에 코델리아에게 얼마나 사랑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에 관해 코델리아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컸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느끼는 것과 별개로 그 사람이 직접 말로써 사랑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또 다른 것이며 분명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기에 사랑한다는 말이 의미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 없이도 사랑을 알 수 있냐 없냐는 토론 주제에서만 생각해본다면 사랑한다는 말 없이도 사랑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채원: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사랑을 알 수 있고 말로 표현하는 사랑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형태의 사랑이 훨씬 더 진실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코델리아 또한 이런 생각으로 인해 사랑을 증명해보라는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으며 결국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내쫓리게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했던 것 같다.

정은채: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말 뿐만

		이 아니라 눈빛이나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은 그냥 정해진 문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만 대체가 가능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행동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극 중의 코델리아는 그의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게 사랑한다는 말을 통한 표현이라면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말도 전하는게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	--	---

4주차	일시	6월 5일 13:30 탐구관 301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조소혜(2392030)	0
		박채원(2392027)	0
		정은채(2392024)	0
		김예은(2392037)	0
문다영(2392014)		0	
진도	도서명: 셰익스피어 4대비극	진도페이지: 639p. ~ 804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강호정 멘토교수님, 조소혜, 정은채, 문다영, 박채원, 김예은]</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토론주제 : 마녀의 예언이 진짜 예언이라서 실행된 것인가,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실행된 것인가</p> <p>김예은 :마녀의 예언은 진짜 예언이면서도, 동시에 맥베스의 행동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맥베스가 직접 마녀들을 찾아가서 들은 두번째 예언들은 전부 맞아떨어졌고, 예언이 아니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때문에 마녀들의 예언은 허무맹랑한 유혹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예언때문에 맥베스의 비극이 초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초반에 ‘헛소리를 하는’ 마녀들을 곧바로 처단하지 않은 것</p>		

을 보면, 애초에 맥베스는 충성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끝까지 반역을 망설였던 맥베스의 성정상, ‘예언’은 그가 과격하고 급하게 일을 실행하는 데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예언은 실제로 예언의 성격을 갖췄지만, 예언을 맥베스가 듣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이 급하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다영:마녀들의 예언은 진짜 예언이라고 생각된다. 마녀들이 맥베스와 벵코에게 한 첫 예언들은 단순히 맥베스의 욕망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칠 수 있지만, 두 번째 예언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짐작으로 맞출 수 있는 예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녀들의 예언이 실제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인이 낳은 자에게 쓰러지지 않는 맥베스“라는 예언을 통해 맥베스는 자신만만해 하지만, 맥베스를 쓰러뜨린 맥더프는 ”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나온 몸이다“라고 한다. 이 상황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과는 다른 사실이 예언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녀들의 예언은 진정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소혜 : 마녀의 예언은 진짜 예언이라서 실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마녀의 말이 예언이 아니라 예언 능력이 없는 마녀가 그저 꾸며낸 말이라고 하기에는 그 예언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이 존재했다. ‘버남의 숲이 던시네인을 넘어 쳐들어오지 않는 한 맥베스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낳은자는 맥베스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은 맥베스 말고는 들은 이가 없는데도 맬컴이 이끄는 군대가 운명처럼 나뭇가지를 위장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예언이 맞아 떨어지게 되고, 여인이 낳은 자가 아닌 맥더프에 의해 맥베스는 사망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마녀의 예언은 진짜라고 생각했다. 밴쿠오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이야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후의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플리언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전개를 통해 선사하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물론 맥베스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뒤로 맥베스에게 숨겨져있던 욕망이 자극 받아 덩컨 왕을 죽이는 등 예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맥베스가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도 예언이 이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기에 이러한 상황만으로 예언이 진짜 예언이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박채원 :마녀의 예언이 진짜라서 실행되었다기 보다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실행된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맥베스는 주체적이지 못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맥베스에게 왕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라도 마녀의 예언이 아니었다면 이 욕망을 끄집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마녀가 한 예언들 중 이루어진 것들도 있지만 밴쿠오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이런

		<p>부분에서 예언의 필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단순히 미래에 대한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언에 필연성을 더해준 인물은 결국 맥베스라고 느꼈다.</p> <p>정은채:함께 예언을 들었던 밴쿠오에게 마녀가 한 예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셰익스피어 역시 이 예언에 대해서 독자들이 생각해보게 한 것 같다. 첫 번째 예언은 진짜가 아니고 두 번째 예언은 진짜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예언은 그에게 진짜 미래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욕망을 끄집어내서 결국 그가 반역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첫 예언은 복귀하던 그의 눈앞에 나타난 마녀들이 한 예언이라 그를 골리려고 한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두번째 예언은 맥베스가 실제로 마녀들을 찾아가 들은 것으로 보아 진짜 예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했다. 예언이 아니라면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이 맞아떨어졌기에 두 번째 예언은 진짜 예언이라고 생각한다.</p>
--	--	--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김예은 (2392037)	<p>독서클럽을 진행하며 문학의 거장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볼 수 있었다. 책을 읽고 함께 주제를 정해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책은 읽는 것보다 읽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책 속 인물들의 상황과 맥락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시선을 말하며 설득하는 과정은 훨씬 뿌듯하고 재미있는 과정이었다. 또 문학문화콘텐츠학과 학생으로서 캐릭터의 설정, 대사를 통한 내면 전달, 시대적 상황의 설정 등 이야기의 재미를 높여주는 요소를 찾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에도 독서클럽 활동을 진행한다면 또 참여하고싶다.</p>
	2	문다영 (2392014)	<p>평상시에 책을 즐겨 읽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여러 책을 접할 수 있던 기회가 된 것 같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라는 책을 선정하면서 명작이라 꼽히는 문학 작품을 직접 읽게 되었고, 각각의 작품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서는 모두 욕망과 복수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이 탄생했지만 주인공 모두 욕망 혹은 복수심에 휩쓸린 인물들로 그들이 오히려 악당이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도 남겨주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주인공들을 욕망과 복수심에 잡아먹혀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적인 결함을 깨닫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다. 토론 활동에서는 ‘가장 비열한 인물은 누구인가?’, ‘가장 불쌍한 인물은 누구인가?’ 등의 토론 주제로 등장인물에 직접 이입해 보며 해당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작가는 등장인물에게 왜 이런 설정을 부여했는지 등 작품을 여러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또, 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p>

		전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나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이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던 계기라고 생각한다.
3	조소혜 (2392030)	독서클럽 팀원들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으면서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본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작품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진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4대비극 중 맥베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에서 마녀의 정의에 비롯한 의견이 있었는데, 단어의 정의가 마술과 주문을 써서 사람에게 불행이나 해악을 가져다주는 인물이라고 정의되어있다는 점에서 마녀가 맥베스와 주변 상황에 불행을 심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맥베스의 내재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예언으로 위장해 한 것이 아니냐는 말 등의 의견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속의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관련해 생각해보는 색다른 시선이었다고 생각해서 인상깊었다. 또 다른 팀원들과 책을 정하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나의 취향만 반영되었던 비슷비슷한 책을 읽는 독서 활동에서 벗어나서 색다른 극본형태의 책을 읽게 되어서 어렵기는 했지만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오히려 즐거웠다. 또 독서클럽을 하면서 통학하면서 지하철에서 휴대폰만 하며 의미없게 보내던 시간을 책을 읽는 등 의미있는 시간으로 남기게 되어서 나 스스로도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주변인들에게 독서클럽활동을 매우 추천하고 싶다.
4	박채원 (2392027)	혼자 책을 읽게 되면 중간에 다 읽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독서클럽이라는 목표가 있어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여러 감정들과 생각을 정리하거나 나눌 기회가 없어 단순하게 책에 대한 후기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여러 의문을 해소했었는데 독서클럽을 통해 동일한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나와 다른 여러 생각을 들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내 생각 또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보통 책을 읽고 나면 단순히 재밌었다라거나 슬펐다거나 하는 단순한 감정만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토론을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높일 수 있었으며 기억에도 비교적 오래 남을 수 있는 독서를 하게 되었다. 책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책을 정하고 토론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능력도 키울 수 있었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번 학기 독서클럽은 끝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종종 이와 비슷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독서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5	정은채 (2392024)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혼자서 읽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책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단순히 책을 읽는 활동을 넘어서서 주마다 여러 토론 주제들을 다루며 생각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읽는 사람들마다 다른 해석과 다른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비교하고 상대의 의견에 공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해보기도 했다. 또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p>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경험이 된 것 같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인간의 욕망과 추악함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그런지 독서클럽을 통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캐릭터 설정, 복선, 시대적 배경, 또 한국과는 다른 서양이라는 공간적 배경까지 소설을 정말 깊게 생각해보면서 읽을 수 있었던 점이 이 활동을 더 뜻깊게 만들어준 것 같다. 독서클럽 활동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기에 기회가 된다면 또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p>
--	--	--	---